

보도자료

Sam Falls 샘 폴스

전시기간: 2024년 9월 3일 - 10월 5일
언론 프리뷰: 9월 3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오프닝 리셉션: 오후 5 - 10시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4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1 am - 6 pm, 토요일: 12 - 6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는 서울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21 갤러리에서 미국 작가 샘 폴스(Sam Falls)의 아홉 번째 개인전이자 처음 열리는 서울 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연과 대기 환경을 탐구하고 환경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샘 폴스는 자연과 시간을 단순히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창작의 과정과 결과에 결합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원동력은 미학을 초월하여 탄생과 죽음, 기쁨과 고통, 빛과 어둠, 자연계의 순환 등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심오한 보편성과 그것의 심리적 극단까지 수용하는 것에 비롯한다. 작업 초반부터 자연의 모방과 체험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폴스는 개념적으로는 추상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활용한 식물형태학, 서식지, 생명주기 연구를 통해 미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망라하여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

예술과 자연에 대한 철학을 자신의 삶과 작업에 투영시킨 그는 창작의 과정과 작품의 미학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발 물러서기를 자처한다. 자연과의 진정한 협업을 위해 붓이나 카메라 등 과거와 현대의 예술 도구도 의식적으로 포기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햇빛이나 비 같은 자연요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연을 도구만이 아니라 예술 창작의 주체로 활용하여 자연의 전이와 일시적 순간 포착에 천착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뉴욕 주 허드슨 밸리와 캘리포니아 시골에 위치한 스튜디오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을 주요 주제와 재료로 사용하여 진화해 왔다.

여느 개념적 포스트 스튜디오 작가들처럼 장소 특정적 작업을 추구하는 샘 폴스의 작품에서 식물은 위치정보 표시의 도구이고 대기 환경은 작품을 완성하는 손이다. 'Mesa Dahlias'(메사 달리아)가 그 예다. 그는 숲이나 들판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 특히 자생식물과 계절식물을 수집하여 절단한다. 캔버스 위에 식물을 늘어놓고 수분에 반응하는 물반응성 드라이 염료를 적용한 후 날씨에 따라 하룻밤, 며칠, 몇 주를 기다린다. 강우나 안개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이미지에 적용되는 노출이 결정되며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한다. 작품마다 노출 정도가 다르며 각각이 특정 순간의 날씨나 지역의 기후, 자연의 지표 안에 존재하는 상징과 지리정보를 담고 있다.

자연광이 만드는 천연 염색 작업에서 폴스는 작품의 시간적 차원을 강조한다. 사진을 전공한 그는 햇빛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1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산업 오브제로 내구성 강한 야외 포토그램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봄의 절정에 만개한 살아있는 식물을 절단하여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식물들은 염색된 캔버스 위에서 초가을까지 자연건조된다. 삼나무 씨, 랙, 서양꼭두서니 뿌리, 메리골드 꽃, 연지벌레 같은 천연염료로 오가닉 캔버스를 직접 염색한다. 'Sleep'(수면, 2022)의 경우처럼 환경의 복원력과 햇빛의 미묘한 상호작용, 작품에 담긴 시간의 흔적을 오롯이 담은 결과물은 시간의 누적 속에서 만물이 가진 내재적 유한성을 구현한다.

GALERIE EVA PRESENHUBER

멸종위기에 처한 자연의 상태와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시작한 시리즈가 '미래를 위한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라믹 작품이다. 'Bobolink'(보보링크, 2022) 같은 대형 세라믹 작품은 식물과 인간의 형상을 결합하여 살아있는 상태의 이 형상들이 지닌 상실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통렬한 상징성을 표현한다. 'Lifelines'(라이프라인, 2023) 같은 대형 작품은 한때 기술적 재현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폴라로이드 사진과 실제 꽃을 사용한다. 작가는 이 매체를 통해 봄에 만개한 꽃의 일시적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몇 주 후 시들어 가는 동일한 꽃을 축축한 점토에 압착하여 불멸의 화석으로 남긴다. 최종 결과물은 찬란한 시작의 순간을 담은 사진과 노쇠한 자아의 화석으로 구성된다. 이 작품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숭고한 헌사인 동시에 덧없는 시간과 노화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불안을 강조한다. 작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작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과 고통이라는 양가감정도 담겨 있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샘 폴스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업스테이트 뉴욕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시간과 노출이라는 사진의 핵심 변수를 자연 및 자연요소들과 결합하여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었다. 주로 야외에서 일상의 재료와 자연을 장소 특정적 주제로 작업하며 기계적 재생산을 거부하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공생적 관계를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사진, 조각, 회화의 간극을 연결하는 동시에 작가, 오브제, 관람객 사이의 분리를 해소한다. 지금까지 개최된 샘 폴스의 개인전은 미국 오하이오주 MOCA 클리블랜드(2023), 일본 도쿄 모리 미술관(2022),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머 미술관(2018), 이탈리아 트렌토 로베레토 근현대미술관(2018), 미국 뉴욕 더 키친(2015), 미국 텍사스 볼룸 말파(2015), 미국 캘리포니아 주 포노마대학미술관(2014), 미국 뉴욕 퍼블릭아트펀드(2014), 미국 로스앤젤레스 LAXART(2013) 등이다. 폴스가 참여한 그룹전으로는 독일 바덴바덴 프리더 부르다 미술관(2024), 스위스 아트 바젤 언리미티드(2019, 2024), 스위스 빈터투어 비엔날레 바이에르탈(2023), 스위스 렌스 오팔 재단(2020),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 미술관(2018), 프랑스 다종 르 콘소시움(2017),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미술관, 영국 워릭대학교 미드 갤러리(2016),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프루트마켓 갤러리(2015),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2015), 미국 휴스턴 메일 컬렉션(2015), 이탈리아 나폴리 마드레 미술관(2014), 미국 뉴욕 국제사진센터(2013) 등이 있다.

작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onsales@presenhuber.com로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자료 및 정보는 press@presenhuber.com으로 문의 바랍니다.